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 Bloomberg: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5개월 만에 최저치
- CNBC: 9월 주요 연준 인플레이션율, 2.1% 기록

[미국 금융]

- WSJ: 금 수요 증가... 거시경제 리스크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

[주택]

- Bloomberg: 모기지 금리 급등, 미국 주택 시장 위협

[오일]

- WSJ: 유가 상승,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중국 경제]

- Bloomberg: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 회복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삼성, AI용 메모리 칩 개발 진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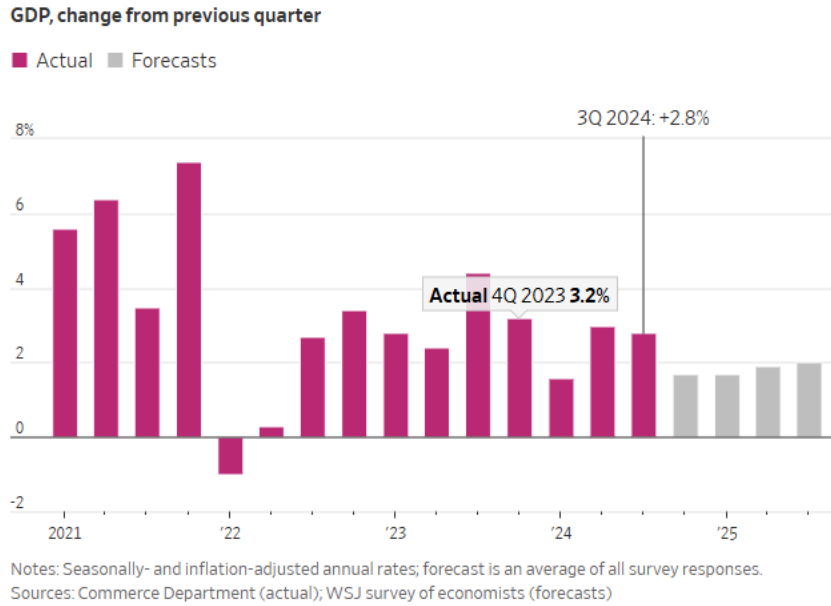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U.S. Economic Growth Extends Solid Streak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 미국 경제가 막대한 소비자 지출과 정부 지출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수요일, 3분기 GDP가 작년보다 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소비자 지출은 3분기 3.7% 상승했다. 기업 지출은 2분기보단 둔화됐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소프트웨어,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인 비주거 고정 투자는 3.3% 상승했다.
- ZipRecruite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Julia Pollak은 “노동 시장이 약간 둔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 이는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디지털화와 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생산성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은 3분기에 완화되고 있다. 2분기 인플레이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지만, 3분기엔 1.5%만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는 이전 분기 2.8%에서 2.2%로 완화됐다. 연준은 연간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택 시장은 3분기에도 약세를 보였다.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택 투자는 5.1% 하락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 주와 12월 회의에서 각각 최소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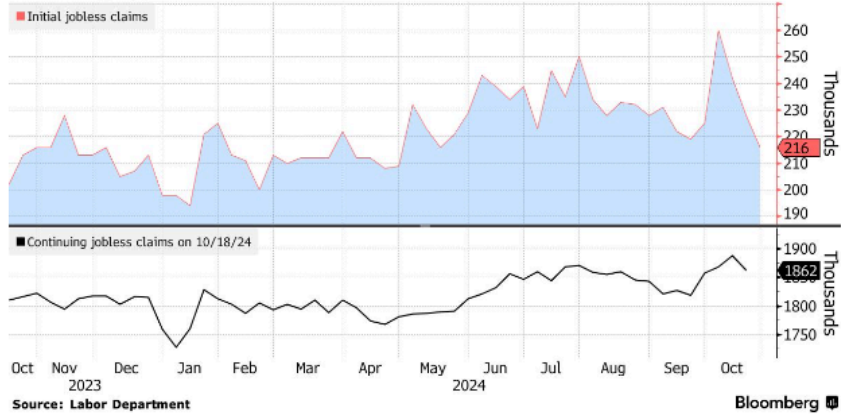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Fall to Five-Month Low as Storm Impact Fades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5개월 만에 최저치

-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0월 26일로 끝나는 주에 청구 건수는 1만2천건 감소한 21만6천건이었다. 오늘 목요일,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계속 청구 건수는 지난주 186만건까지 감소했다.
- 미국은 남동부 주들을 덮친 두 차례의 폭풍의 피해를 회복하고 있다.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플로리다주가 가장 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폭을 보였다.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년간 증가세였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이 호황이었던 팬데믹 이전 2년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다.

US Jobless Claims Fall as Hurricane Impact Fades Continuing applications also fell in week ended Oct. 19



Bloomberg 기사

CNBC: Key Fed inflation rate hits 2.1% in September, as expected 9월 주요 연준 인플레이션율, 2.1% 기록

- 오늘 목요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인플레가 소폭 상승했다.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0.2%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지난달보다 0.3% 상승한 2.7%였다.
- 인플레는 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져 있다. 서비스 가격은 0.3% 증가했지만, 상품 가격은 0.1% 감소했다. 지난 5개월 동안 상품 가격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주택 가격은 0.3% 상승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은 2% 하락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WSJ: Gold Supported by Macro Risks, U.S. Election Uncertainty 금 수요 증가... 거시경제 리스크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 때문

- 이번 주 초 금값이 온스당 2천8백 달러를 넘겼다. 금 선물은 0.4% 하락한 온스당 2천7백8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 ANZ Research 분석가들은 “거시경제 리스크 때문에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시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 세계 금 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올해 3분기 안전 자산 수요는 작년 3분기보다 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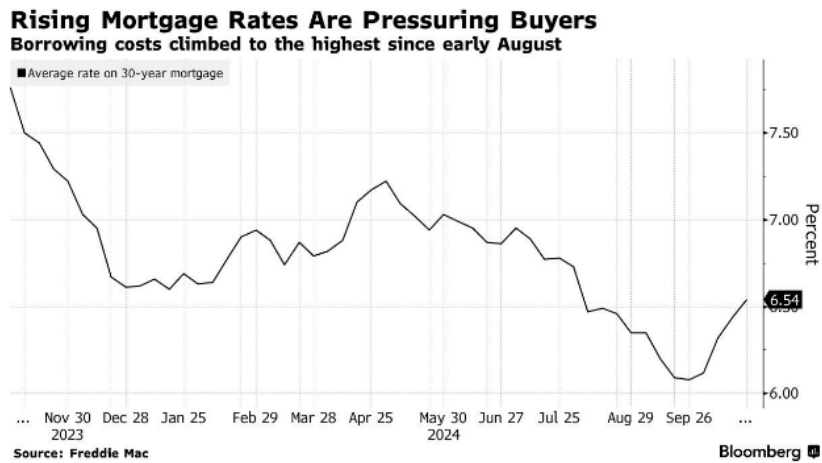
WSJ 기사

[주택]

Bloomberg: Surging Mortgage Rates Threaten US Housing Market Momentum

모기지 금리 급등, 미국 주택 시장 위협

- 9월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 지난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다시 급등했다.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대출 비용 상승으로 10월 내내 감소했다.
- 모기지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를 위축시킨다. 주택 공급도 락인 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다.
- Brean Capital 채권 전략 책임자 Scott Buchta는 “주택 시장이 회복하려면 5.5% 미만의 모기지 금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면 조만간 이뤄지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 Realtor.co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Ralph McLaughlin은 “대출 비용이 조금만 낮아져도 주택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 9월에 금리가 약 6%로 떨어졌을 때 구매 계약 체결이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 Realtor.com에 따르면 여름에 구매자를 찾지 못한 매물과 신규 매물 증가로 10월 매물 재고는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월 보류 중인 매물은 작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Edges Higher on Demand Optimism

유가 상승,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 유럽 조기 거래에서 유가가 2% 상승했다. 미국의 수요 증가와 중국의 수요 회복 신호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브렌트유는 0.2% 상승한 72.2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2% 상승한 68.7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 중국 PMI(구매관리자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중국 제조업 활동이 6개월 만에 확장됐다. ING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국내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아직 부진한 수요와 OPEC+의 증산 계획으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도 유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OPEC+는 12월 1일 석유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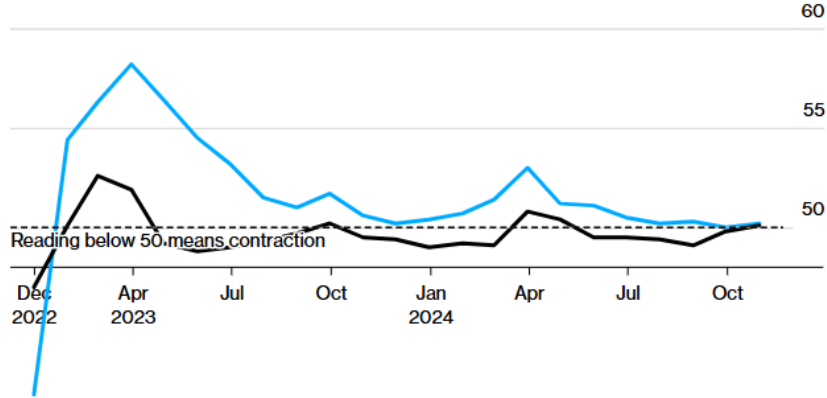
[중국 경제]**Bloomberg: China Economy Picks Up on Stimulus Push Ahead of US Election****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 회복**

- 중국 경제가 과감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다. 오늘 목요일,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은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 PMI가 50 이상이면 경제가 확장 중인 것이다. 5개월 만에 중국 제조업이 확장세를 보였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 및 서비스 부문 활동이 확장세를 보였다.
- 이번 PMI 발표는 중국이 9월 말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 시장 부양책을 발표한 후 처음 발표된 공식 경제 지표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이 목표 성장률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PAG의 Weijian Shan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중국은 투자와 수출에서 민간 소비 방향으로 경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ING 은행 수석 중화권 이코노미스트 Lynn Song은 경기 부양책이 악화되고 있는 대외 수요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내수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경제학자 Chang Shu와 David Qu는 여전히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ina Factory Activity Expands in October

PMI surveys show green shoots i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after stimulus push

Manufacturing PMI Non-Manufacturing PMI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amsung Sees Progress in Memory Chips for AI After Delays

삼성, AI용 메모리 칩 개발 진전

- 경쟁사들에게 뒤처지고 있던 삼성이 AI 컴퓨터를 위한 특수 메모리 칩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오늘 목요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메모리 칩인 HBM3E를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삼성은 올해 4분기 동안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HBM 매출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 10%에서 4분기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AI 붐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터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美 3분기 성장률 2.8%...소비호조에 강한 성장·잠재성장률 상회 (종합)

개인소비 3.7% 증가하며 성장 견인...경기 위축 우려 불식 '연준 선호' 근원 PCE 물가 2.2%로 하락...'노랜딩' 기대 커질 듯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3%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경기가 점차 위축될 것이란 전문가들 관측과 달리 미 경제의 주축인 소비의 탄탄함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